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업종과 종목

사상 최고 주가에도 최고치 23배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 PER(이익의 꾸준한 개선). 미국 IT 및 금융 섹터의 실적 상향폭 확대로 버블 논란 불식, 특히 시총 최상위인 엔비디아 및 브로드컴, JP모건의 이익 상향이 큰 상황. 세부적으로는 금속광물(금), 가스유틸(가스+재생 수요), 반도체(AI 수요), 은행(대출 증가) 등의 실적 상향 크게 부각. 관세 우려에도 중국의 이익도 소재, 산업재, IT 섹터 위주로 강한 모멘텀 발생 중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금속/광물, 가스유틸리티,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은행, 독립전력 및 신재생 발전

금속/광물: 금·은 등 귀금속 및 광물 가격이 2025년 들어 급등하면서 광업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음. 공급 측면(광석 품위 저하, 허가 지연, 투자 부진)과 수요 측면(산업용 수요 + 인플레 헤지 수요) 모두 개선. 이에 따라 광업기업의 마진 개선이나 현금흐름 강화를 기대하는 리포트 증가. 예컨대 “Precious metals stocks are back with a vengeance”라는 분석.

가스유틸리티: 전력 수요 증가 및 재생전환·가스발전 혼합 전략이 부각되며 유틸리티 업종에 긍정적 기가 강화. 특히 가스발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스발전·혼성발전(가스+재생)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언급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AI 및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반도체 및 장비 업종의 실적 전망을 크게 바꾸고 있음. 예컨대 주요 장비업체 ASML이 AI 수요 덕분에 수주와 실적 기대 상승. 또한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TSMC)의 이익 서프라이즈 및 가이던스 상향이 업종 기대 견인. 애널리스트들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향 의견을 유지하는 움직임

은행: 미국 은행들이 3분기 실적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내면서 은행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안정 기대감이 상승. 투자은행(IB) 수수료, 자산관리 및 소비자대출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은행 업종이 실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짐

독립전력 및 신재생 발전: 전기 수요가 AI 인프라, 산업·수송 전기화 등에 의해 올라가고 있어 IPP(독립전력생산자) 및 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특히 재생+가스 혼합 발전 모델과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가능성 부각. 다만 업종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리포트보다는 구조 변화 기대감

하향 업종은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해운, 컨테이너 및 포장, 석유, 가스 및 소비성 연료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upstream 지출 약화 + 가격 압력 + 서비스 수요 둔화라는 흐름이 설비 및 서비스 업종의 실적 기대치 하향을 이끌고 있음

해운: 운임·물동량 약세 + 선복증가 우려 + 글로벌 무역 둔화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해운 업종 실적 하향 배경

컨테이너 및 포장: 소비 및 물동량 둔화 + 수요 정체 + 마진 침체라는 흐름이 이 업종 실적 하향의 주요 배경

석유, 가스 및 소비성 연료: 공급 과잉 + 가격 하락 전망 + 수요 둔화 + 업스트림/서비스 활동 약화라는 복합적 역풍이 이 업종의 실적 하향 요인으로 작용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애그니코이글마인스, 소프트뱅크, 모건스탠리, 뉴몬트, 쉘, 에퀴닉스, 마이크론, 인터액티브로커, 웰스파고, 찰스슈왑, 골드만삭스, 프롤로지스, 보잉, 도어대쉬, US뱅코프, BofA, 로빈후드, 블랙락, 시티그룹, 메이탄, AMD, JP모건, 스포티파이, 엔비디아, ASML, 지멘스, 비스트라, 인텔, 루이비통, 브로드컴, 암페놀, 나이키, 램리서치

하향 주요 종목은 로블록스, 셰브론, 브룩필드, 코노코필립스, 티모바일, 엘레반스헬스, 프로그레시브, 메르카도리브레, 쇼피파이, 노보노디스크,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디어, 테슬라, HSBC, 스트래티지, 아람코, 허니웰, 리퍼블릭서비스, 페라리, 애브비, 토탈에너지스, 웨이스트매니지먼트, 머크, 코인베이스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외국인/기관 수급

코스피 3Q25F YoY +12.7% 예상, 이익 반등 지속. **3Q25F OP**는 78.3조원 (1M +1.2%, 1W +0.1%). **2025E OP**는 290조원 (1M +2.0%, 1W +0.1%)으로 한국 이익 추정치 상향 추세, 특히 내년 26년 한국 OP 이익 추정치는 1개월간 +8% 상향(371조원). **26F OP 상향 업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조선/건자재/증권, 방송엔터, 기계. **하향 업종**은 항공, 상사, 제약바이오, 화학, 섬유의복, 화장품, 게임엔터, 2차전지, 해운, 자동차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OP 26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NAVER, SK스퀘어, HD현대일렉트릭 상향.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카카오, LG화학, POSCO홀딩스 하향

3Q25F OP 상향 주요 종목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한온시스템, , SK하이닉스, 삼성SDI, 이오테크닉스, SK스퀘어, 유한양행, 한화엔진, HD현대, HD현대마린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넷마블, 엘앤에프,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 CJ,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마린솔션, 효성중공업, LG이노텍, HD현대일렉트릭,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한화오션, 리노공업

외국인은 고배당 순매수 집중.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1.0조원, 코스닥 -1,9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화학, 상사, 유틸리티, 2차전지, 가전. **순매도 상위 업종**은 비철

금속, 방산, 건강관리장비, 상호미디어

연기금은 대형주 및 고배당 순매수.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1,600억원, 코스닥 -69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화학, 철강, 전기장비, 가전, 유틸리티. **순매도 상위 업종**은 통신, 디스플레이, 필수재, 유통, 내구소비재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10.20일(월)

미국 산업생산, 선행지수 / -

21일(화)

미국 연준 윌러 이사 연설 / 넷플릭스., GE에어로스페이스,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록히드마틴, 캐피탈원, GM

22일(수)

미국 원유재고, 20년물 채권 입찰 / HD현대마린솔루션, 현대건설, LG이노텍, 테슬라, IBM, 램리서치, GE버노바

23일(목)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기존주택판매, 5년물 국채입찰 / 현대차, HD현대일렉트릭, 삼성중공업, 우리금융지주, 티모바일, 인텔

24일(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신규 주택판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 기아, 기업은행, 효성중공업, 삼성E&A

Quant Comment

최근 미국 및 중국 실적 상향폭 주가 상승폭보다 커, 글로벌 증시 버블 논란 불식(IT 및 금융 위주). 한국 역시 내년 실적 상향폭 급증, 내년 OP 증가율 +28%으로 상승 중(반도체 기여도 99%). 최근 연말 계절성 반영 중, 외인 및 기관의 고배당 매수, 일부 공매도 잔고 감소 종목군의 급등세, BM 초대형주 강세 등. 중소형 실적주 및 실적모멘텀 팩터 등은 11월 중 반등 계절성 관찰, 당분간 계절성 연동 시장 성향 우세. 배당 ETF 설정액 증가 지속으로 배당 최대세율 하향 기대감 지속